

## 2) 20세기 미국소설

### (1) 사실주의 소설(Realism Novels)

20세기 미국문학은 사실주의 문학의 본격적인 탄생으로부터 출발한다. 19세기 후반에 미국문학은 사실주의의 본격적인 탄생을 알리는 전조가 이미 무르익었다.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해양체험을 소재로 다수의 해양소설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색 작가를 대표하는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미시시피 강변에서 성장하면서 겪었던 사람들과 자연환경을 소설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 사회는 영토의 팽창이 완료되고 도시의 팽창과 자본주의 급격한 발전을 경험하면서 내부적으로 전에 없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과거에 끝없이 팽창했던 프론티어가 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은 이제 정지해 버렸고,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주의의 성장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미국의 꿈”을 물질만능의 탐욕으로 변질되어 갔다. 미국의 사실주의는 거칠어져 가는 삶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작품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 (2) 윌리엄 딘 하월스(William Dean Howells, 1837-1920)

윌리엄 딘 하월스는 1837년 오하이오주 마틴스빌(Martinsville)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신문 편집자이자 출판인이었는데, 하월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출판일을 도왔다. 1858년에 그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저널(Ohio State Journal)에서 일했으며 거기서 시와 단편소설 등을 쓰기도 했고 외국의 작품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1860년 무렵에 그는 보스턴에서 나다니엘 호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랄프 왈도 에머슨과 같은 당대의 유명한 문인이자 사상가들을 만났다.

1860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선거기간 동안 그의 자서전을 집필하는데 도와 준 것을 인연으로 하월스는 이후 베니스의 영사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와 하월스는 문예지 『어틀랜틱 먼슬리』(*The Atlantic Monthly*)의 편집인이 되어 1869년까지 일했다. 그는 마크 트웨인을 만나 평생지기가 되었으며 사실주의라는 그의 문학적 성향을 이때 발전시켰다. 1885년 그의 대표작인 『사일러스 라팜의 출세』(*The Rise of Silas Lapham*, 1885)를 발표했는데, 이 작품은 그의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정신적 상황을 진솔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의 사실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월스는 미국 사실주의 유파의 창시자이자 미국 사실주의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다.

『사일러스 라팜의 출세』는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사일러스 라팜이 물질적으로 성공한 삶을 이루었다가 다시 몰락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사일러스 라팜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지만 페인트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사회적 지위와 고상한 수준을 얻기 위해 보스턴에 대저택을 짓고 보스턴의 사교계에 출입한다. 그는 그의 딸을 보스턴의 귀족가문인 코리(Corey) 가문과 결혼시키고자 한다. 순조로워 보이던 사일러스의 계획에 갑자기 불운이 닥친다. 그가 숨겼던 신분이 탄로 나고, 그의 보스턴 대저택도 불타 없어져 버린다.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일러스는 자신의 허영과 꾀대기 밖에 없는 보스턴에서의 부질없는 삶을 깨닫고 다시 농장으로 내려온다.



William Dean Howells<sup>1)</sup>

### (3) 헨리 제임스(Henry James, 1843-1916)

헨리 제임스는 1843년 뉴욕의 지적이고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헨리 제임스는 성장하면서 교육적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학교에서 수학하지 않고 유럽의 여러 도시에 머물면서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했다. 19세에 하버드 법대에서 잠깐 공부했지만 법학 보다는 문학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었다.

헨리 제임스의 유럽 문학과 문화에 대한 취향은 급기야 그가 죽기 1년 전인 1915년 그가 영국으로 귀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가 귀화하기 이전부터 그는 유럽 특히 런던에서 거의 40년 정도를 거주했다. 구대륙과 신대륙을 동시에 경험한 그의 이러한 특이한 이력은 그의 작품을 통해 소위 “국제적 주제”라는 당시로서는 헨리 제임스만의 독특한 작품소재로 반영되었다.

헨리 제임스의 작품활동은 작품의 소재와 내용에 따라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는 1871년부터 1890년까지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는 “국제적 주제”를 주로 다룬 시대로 볼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예술, 문학, 문화, 전통 등이 서로 비교되거나 충돌하면서 양쪽의 특징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의 작품들이 주로 이 시기에 집필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서양 예술의 발생지인 로마로 간 미국의 조각가를 소재로 다룬 『로더릭 허드슨』(*Roderick Hudson*, 1876), 거칠지만 순수한 미국인 뉴먼(Newman)과 세련되고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 귀족 여성 클레어(Claire) 부인과의 사랑과 좌절을 이야기로 다룬 『아메리칸』(*The American*, 1877), 순수한 미국소녀가 유럽의 풍습과 전통으로 인해 좌절하는 이야기를 그린 『데이저 밀러』(*Daisy Miller*, 1879), 그리고 이사벨 아처(Isabel Archer)라는 용기있는 미국 여성이 영국과 유럽을 배경으로 유럽의 관습과 문화적 전통을 겪어가는 내용을 다룬 『귀부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 1881)가 있다.

헨리 제임스의 활동 제 2기에 해당되는 1890년부터 1900년까지는 자신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영국과 영국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망인과 그 아들의 결혼을 둘러싼 잡다한 지극히 영국적인 집안 문제를 소재로 다룬 『포인톤의 약탈품』(*The Spoils of Poynton*, 1897), 부모의 이혼과 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세계를 그린 『매이시가 알았던 것』(*What Maisie Knew*, 1897) 등이 있다.

1900년 이후인 제 3기의 작품들은 다시 “국제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대사들』(*The Ambassadors*, 1903)과 『황금 주발』(*The Golden Bowl*, 1904)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헨리 제임스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대사들』은 동부의 부호집안 출신

1) [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Dean\\_Howells](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Dean_Howells)

젊은이가 파리의 사교계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황금 주발』은 미국의 부유한 남자와 유럽의 몰락한 귀족 그리고 미국 여성이 관련된 애정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헨리 제임스는 미국의 사실주의를 한층 더 깊이 있는 단계로 진입시켰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외관이나 사건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섬세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심리적 사실주의라는 새로운 소설기법을 선보였다. 그의 소설은 이야기 진행이 너무 느리거나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는 사건의 배경과 인물의 심리적 상황 등을 대단히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헨리 제임스 이전의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소설기법을 개척했다.

헨리 제임스의 말년에 집필된 『대사들』의 줄거리와 기교는 그의 예술적 완성도가 가장 완숙하게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동부출신인 중년에 접어든 램버트 스트레더(Lambert Strether)는 약혼자의 아들인 채드 뉴섬(Chad Newsome)을 찾으러 파리로 간다. 파리로 가는 도중에 램버트는 파리에서 다년간 살았던 미국여자 마리아를 영국에서 만나게 된다. 마침내 그는 파리에서 채드를 만나게 되고, 채드는 램버트를 가든파티로 데려간다. 거기서 램버트는 마리(Marie de Vionnet)이란 세련된 매너를 지닌 이혼녀와 그녀의 딸을 만나게 된다. 램버트는 채드가 이혼녀에게 끌린 것인지 아니면 그 딸에게 빠진 것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램버트는 이혼녀 마리에게 끌리게 되면서 갈등한다. 램버트는 파리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채드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고향 미국에서 채드의 어머니이자 램버트의 약혼녀는 애타게 아들과 애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램버트는 파리에서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을 여행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연히 함께 있는 채드와 마리를 만나게 되고, 비로소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그는 채드에게 마리를 떠나지 않도록 충고하고 자신은 더 이상 프랑스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게 된다. 그는 영국에서 만난 마리아의 청혼을 뿌리치고 미국으로 귀환한다.



Henry James<sup>2)</sup>

#### (4) 자연주의 소설의 탄생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거듭한 미국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빈부간의 격차,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문학적 소재로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당시의 미국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문학을 통해 그려내고자 했던 문예사조가 사실주의(Realism)다.

2) [http://en.wikipedia.org/wiki/Henry\\_James](http://en.wikipedia.org/wiki/Henry_James)

사실주의가 사회적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개선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갈등과 물질만능의 사회적 풍조가 빚어낸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점차 물질적 탐욕과 약육강식의 사회적 환경은 인간의 존재를 야성의 환경에 던져진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운명론적인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잔인한 사회구조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아닌 하나의 동물 개체로서 환경에 지배를 운명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관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기 시작한 문예사조가 자연주의(Naturalism)다. 따라서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에서 출발했지만 보다 비관적이고 암울한 삶의 일면을 더욱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그려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주의는 19세기 중후반에 과학발달과 인간존재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 1859)에 직접적인 이론적인 영향을 받았다. 즉,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환경결정론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인간 역시 외부의 환경에 의해 행동과 정신상황이 결정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 믿었다.

자연주의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의도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연한 사건이나 우연한 환경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이러한 우연에 지배되는 등장인물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면서 인간의 운명 역시 인간 스스로에 의해 개척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연주의 소설속의 인물들은 종종 성격 혹은 본능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지배를 받는 존재로 그려진다. 자연주의는 인간을 하나의 동물 혹은 개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각자의 고유한 성격이나 태도 역시 노력한다고 바꿀 수 없는 타고 태어난 본능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들은 논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본능에 결국 충실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성격, 태도, 운명은 개인의 노력이나 결심과는 무관한 타고난 환경이나 유전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주의가 바라보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기력한 허상이거나 오히려 인간 스스로의 태생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자연주의 소설에서 살아남는 등장인물들은 도덕이나 정의와 같은 관념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을 충실하게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만약 이들이 스스로 정한 도덕관이나 자의식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삶을 고집할 때 그들은 여지없이 파멸하게 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작가로는 스티븐 크레인(Stephen Crane, 1871-1900), 프랭크 노리스(Frank Norris, 1870-1901), 시오도르 드라이저(Theodore Dreiser, 1871-1945)가 있는데, 스티븐 크레인과 프랭크 노리스는 자신이 겪은 생생한 체험을 소재로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이들의 작품들은 종종 커다란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시오도르 드라이저는 미국의 자연주의를 완성한 작가로 평가되는데, 그는 너무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회를 고발했던 자연주의 소설을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가진 문학으로 끌어 올렸다.

##### (5) 스티븐 크레인(Stephen Crane, 1871-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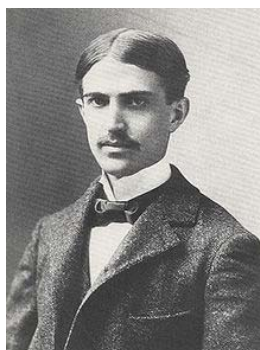
스티븐 크레인은 1871년 뉴저지주 뉴웁(Newark)에서 종교인의 아들로 태어났

다. 크래인은 어려서 병약했으며, 유독 글쓰기를 좋아해서 8살 때 시를 썼으며, 14살 때는 그의 첫 소설을 쓰기도 했다. 17세에 일종의 군사학교 성격의 클래버랙 칼리지(Claverack College)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형의 조수가 되어 언론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후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시라큐스(Syracuse) 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했지만 결국 글쓰기에 집중하고자 학업대신 작가와 기자의 길을 걸었다.

뉴욕에 거주하는 동안 뉴욕 빈민가의 실생활을 접하고 그 경험을 소재로 외부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타락해 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매기, 거리의 여자』(*Maggie: A Girl of the Street*, 1892)를 탈고하게 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염세적이어서 뉴욕의 많은 출판사들이 소설의 출판을 거절하게 되어 크래인은 자비로 이 소설을 출판했다. 『매기, 거리의 여자』는 자연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한 소녀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리의 여자로 흘러들어 갈 수 밖에 없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895년에 발표한 『붉은 무공훈장』(*The Red Badge of Courage*, 1895)은 남북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 발표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크래인은 이 소설에서 전쟁을 미화하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발굴하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평범한 한 병사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시선을 통해 전쟁의 실상을 작품을 통해 묘사했다. 『붉은 무공훈장』은 자연주의 소설성향을 가지기도 하지만 스티븐 크래인 이후 1차세계대전 이후에 선을 보였던 전쟁소설들의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했다.

『매기, 거리의 여자』에서 매기는 뉴욕 빈민가의 전형적인 가정의 소심하고 겁많은 소녀다. 매기는 술주정뱅이 부모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며 지낸다. 이후 아버지가 죽자 매기는 희망을 가지고 나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바텐더인 피터(Peter)는 외모가 아름다운 매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둘은 데이트를 즐긴다. 매기는 피터의 겉멋과 세속적인 지식에 빠져들게 되고 그를 통해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기의 동생 지미(Jimmy)는 피터가 매기를 타락시켰다고 여기고 둘은 크게 다툰다. 매리는 집을 나와 피터와 동거를 한다. 며칠 후 매기는 피터가 바텐더 일을 하는 술집에서 넬리(Nellie)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넬리는 피터가 매기를 버리도록 유혹한다. 버림받은 매기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매기를 받아주지 않는다. 갈 곳이 없는 매기는 이후 거리의 여자로 전락해 비참한 생을 이어가게 되고, 매기를 버린 피터는 술에 빠져 결국 넬리에게서 버림을 받는다. 이후 매리는 거리에서 죽은 채 발견되면서 비참하고 짧은 인생을 마친다.



Stephen Crane<sup>3)</sup>

3) [http://en.wikipedia.org/wiki/Stephen\\_Crane](http://en.wikipedia.org/wiki/Stephen_Crane)

(6) 프랭크 노리스(Frank Norris, 1870-1902)

프랭크 노리스는 1870년 시카고에서 출생했다. 1884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했으며, 이후 10대 후반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에밀 졸라(Emil Zola)와 같은 자연주의 작가들과 작품들을 접했다. 미국으로 돌아와 1890년엔 버클리 대학에 입학해서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과 허버트 스펜스(Herbert Spencer)의 사회적 진화론 등을 공부했다.

1895년에 프랭크 노리스는 남아공화국으로 가서 2년정도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신문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1898년에는 쿠바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노리스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문학으로 옮기는데 관심을 가졌으며, 그가 바라본 현실은 늘 인간의 의지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에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 가는 모습들이었다. 1898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작 『맥티그』(McTeague, 1898)는 기자로서의 그의 생생한 경험과 그가 관심을 가졌던 자연주의적 문학관이 빚어낸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맥티그』는 물질적인 탐욕과 질투 등으로 인해 결국 살인에 이르고 결국 모두가 파멸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인 맥티그는 무면허 치과의사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업을 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맥티그의 친구인 마쿠스 숄러(Marcus Shouler)는 맥티그에게 트리나(Trina)라는 여성을 소개시켜 준다. 트리나는 맥티그에게 치료를 받다가 맥티그와 좋아지게 된다. 그러다 트리나는 5000달러 복권에 당첨되게 되고, 맥티그는 트리나와 결혼을 발표한다. 이에 마쿠스는 맥티그에게 질투를 느끼면서 트리나의 복권상금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다고 주장한다.

맥티그와 트리나는 결혼을 한다. 트리나는 아주 인색한 성격을 보이는데 자신이 받은 복권당첨금 5천 달러를 누구와도 나누려 하지 않는다. 트리나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는데 집착한다. 맥티그와 마쿠스의 우정은 점점 악화되어 서로 싸우게 되고 마쿠스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게 된다. 맥티그는 불법의료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는 마쿠스가 떠나면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맥티그는 이제 치과시술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는 가난하게 된다. 맥티그는 트리나가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을 가져가면서 둘은 헤어지게 된다. 맥티그가 다시 돌아오지만 트리나는 맥티그를 거부하고 그에게 일체의 돈은 커녕 음식조차 주지 않는다. 술을 먹고 화가난 맥티그는 트리나를 때려죽이고 그녀가 모은 모든 금을 가지고 도망을 친다. 마쿠스는 맥티그를 추적해서 마침내 데쓰벨리(Death Valley)에서 그를 붙잡는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은 싸우게 되고, 맥티그가 마쿠스를 죽이자만 마쿠스는 죽으면서 수갑을 꺼내 자신과 맥티그의 팔에 수갑을 채워버린다. 맥티그는 수갑에 묶인 마쿠스의 시체를 끌고 데쓰벨리 사막 한가운데에 홀로 버려지게 된다.



Frank Norris<sup>4)</sup>

(7) 디오도르 드라이저(Theodore Dreiser, 1871-1945)

디오도르 드라이저는 1871년 인디애나주 테르 오프(Terre Haute)에서 출생했다. 13명 중 12번째 아이로 태어난 디오도르 드라이저는 가난하고 힘든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일찍부터 자립하여 삶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인디애나 대학에 입학했지만 1년 정도 다니다 대학을 그만두었으며, 이후 1982년부터 약 10년간 시카고 글로버(Chicago Globe)나 세인트루이스 글로버-디모크랫(St. Louis Globe-Democrat)과 같은 몇몇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기자로 일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을 인터뷰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었다. 이때의 경험들이 후일 그가 소설가로서 작품을 창작하는데 소중한 배경이 되었다.

그의 첫 번째 소설 『시스터 캐리』(*Sister Carrie*, 1900)는 물질만능과 성공의 욕망으로 타락한 영혼으로 변해가는 순진한 시골처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로 인해 드라이저는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미국의 비극』(*An American Tragedy*, 1925)는 그의 두 번째 소설이면서 그에게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 작품이었다.<sup>5)</sup> 그를 유명하게 만든 두 편의 소설은 그 이야기의 사실성과 충격적인 내용들은 그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직접 보고 겪었던 범죄나 사회적 문제들에 상당히 근거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06년에 실제 있었던 체스터 질레트(Chester Gillette)라는 젊은이가 그레이스 브라운(Grace Brown)이라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미국의 비극』의 직접적인 소재가 되었다. 드라이저의 작품들은 종종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의 작품들은 삶의 잔인한 현실이나 성적으로 다소 외설적인 내용이나 사회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드라이저는 실생활에서도 사회적 비리나 고통받는 대중들을 위한 정의를 위해 집회나 단체에 열성적으로 가담했다. 드라이저에 의해 미국의 자연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작품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자연주의적인 시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선동이나 고발을 넘어서는 문학적인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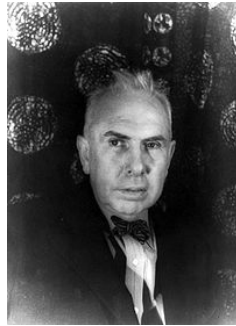
『미국의 비극』은 클라이드(Clyde)라는 젊은이의 욕망과 파멸을 소재로 하고 있다. 클라이드는 가난하고 종교적인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는 한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게 되면서 세련되고 부유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로 인해 클라이드는 마약이나 매춘과 같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극적인 삶에 눈뜨게 된다. 그는 훔친 차를 몰다 아이를 치어 죽이게 되자 캔자스시티로 도망을 치게 된다. 이후에 그는 오래 전에 헤어졌던 삼촌이 운영하는 뉴욕 소재의 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게 된다. 삼촌은 친척인 클라이드를 좋게 보고 공장의 요직으로 승진을 시킨다. 클라이드는 공장여공으로 일하고 있는 로베르타 알덴(Roberta Alden)이라는 가난하고 순진한 시골처녀에 끌리게 되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된다. 클라이드는 로베르타와 비밀스런 애정관계를 유지해 가지만, 그는 성공과 물질에 야심이 대단했기에 가난한 로베르타를 결혼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클라이드는 손드라 핀츨리(Sondra Finchley)라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을 알게 되고 둘은 서로 좋아하게 된다. 그러던 중 로베르타는 임신을 하게 되고, 클라이드를 찾아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클라이드는 부유한 손드라와의 결혼이 일생일대의 기회임을 깨닫고 로베르타에게 낙태를 권하지만 로베르타는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 성공에 대

4) [http://en.wikipedia.org/wiki/Frank\\_Norris](http://en.wikipedia.org/wiki/Frank_Norris)

5) *An American Tragedy*는 1931년과 1951년 *A Place in the Sun*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 졌다.

한 야심에 이성을 상실한 클라이드는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로베르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로베르타를 한적한 호수로 데려가 카누에 태운 다음 호수 가운데로 가서 다시 그녀를 설득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로베르타를 카메라로 내리치게 되고 갑자기 배가 뒤집져 둘은 모두 호수에 빠지게 된다. 수영을 못하는 로베르타는 물에 가라앉고 클라이드는 수영을 해서 물밖으로 빠져 나온다. 이후 클라이드는 로베르타에 대한 살해 혐의를 받고 법정에서 서게 되고 살인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Theodore Dreiser<sup>6)</sup>

(8) 업톤 싱클레어(Upton Sinclair, 1878-1968)

업톤 싱클레어는 1878년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주류상이었으면서 알콜중독자였는데, 이로 인해 업톤 싱클레어는 불행하고 어두운 유년기를 보냈다. 1888년 싱클레어 가족은 뉴욕의 브롱크스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그는 뉴욕 시립대학(City College of New York)에 입학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위해 싱클레어는 소설이나 기사를 써서 팔았다.

1904년 싱클레어는 폭로소설(muckraking novel)을 쓰기 위해 시카고의 육고기 포장공장에 위장취업을 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보고 겪은 비위생적인 고기가공 생산과정과 노동자에 대한 잔혹한 착취상황을 자신의 대표적인 폭로소설 『정글』(*The Jungle*, 1906)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육류가공공장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비인간적인 노동상황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미국 육류소비량이 절반이나 감소하기도 했다. 싱클레어는 『정글』에서 단지 육류공장의 문제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주의와 부도덕한 자본가의 기업이 가진 문제점을 신랄하게 부각시켰다. 『정글』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 소설이 미치는 대중적 영향이 워낙 지대했기에 미국정부가 음식물에 대한 새로운 위생법안(Pure Food and Drug Act)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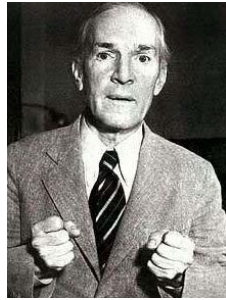
업톤 싱클레어는 미국 폭로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다. 자연주의와는 달리 폭로주의는 사회의 비리와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문학을 통해 폭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폭로주의 문학은 문학과 저널리즘이 결합한 형태로 사회의 어둡고 더러운 부조리를 무자비하게 파헤쳐서 고발하고자 했다. 업톤 싱클레어는 পুল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소설, 드라마, 년픽션 등 여러 장르에 걸쳐 90편 이상의 작품을 썼다.

『정글』은 리투니아 가족의 요란한 결혼축하연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성대한 결혼식 이면에는 어쩔 수없이 과다한 비용의 지출이 어두운 그림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온 루드쿠스(Rudkus) 가족은 시카고에 정착했다. 그들의 꿈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정착은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었다. 사기를 당해 가진 돈을 모두 날리고

6) [http://en.wikipedia.org/wiki/Theodore\\_Dreiser](http://en.wikipedia.org/wiki/Theodore_Dreiser)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도덕적 가치관을 따질 여지가 없다. 이들은 시카고 가축수용장의 끔찍한 노동환경에 접하게 되는데, 그곳은 불법과 밀거래 착취가 만연하는 곳이었다.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들을 사고로 내몬다. 루드쿠스 가족들중 일부도 사고를 당하게 되고, 서서히 절망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주인공인 루드쿠스 가족의 젊은 아들 주르기스(Jurgis)는 시카고의 육고기포장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혹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다 그는 어느 사회주의자의 연설을 듣게 되고, 연설내용에 감화를 받는다. 그는 사회주의와 강력한 노동조합만이 이 사악한 환경에 대항할 수 있는 해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Upton Sinclair<sup>7)</sup>

---

7) [http://en.wikipedia.org/wiki/Upton\\_Sinclair](http://en.wikipedia.org/wiki/Upton_Sinclair)